

## 심장 판막 치환술을 병행한 관상 동맥 질환수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 경환, 채 현, 노 준량

1989년 3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총 10명의 환자에서 심장 판막치환술과 관상동맥 우회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남자가 6명, 여자가 4명이었고, 연령은 47세에서 64세까지였으며, 7명의 환자에서 단일 판막치환술을, 2명의 환자에서 이중 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 다른 1명의 환자는 판막치환술후 1년만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당시 인공판막 부전의 증거는 없었다. 관상 동맥 우회술시 총 문합 혈관을 15개였는데, 14개는 대복재정맥, 1개는 내유선 동맥이었다.

운동시 호흡관련이 가장 흔한 증상이었고, 전 환자에서 나타났으며, 8명에게서 안정성 협심증, 1명에게서 심근경색후 협심증상이 보였고 나머지 1명은 협심증 증상이 없었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판막치환전에 시행하여 심근 허혈 기간을 최소화 하려고 했으며, 슬후 경과는 양호했고 조기 사망 환자도 없었다. 다른 여러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 두가지 수술을 함으로써 판막질환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보다 더 수술 위험률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의견이다.

요약어 : 심장 판막치환술, 관상동맥 우회술